

베누티의 ‘이국화(foreignization)’의 중한번역 적용을 위한 소고(小考): ‘소수 문학’의 ‘낯섦’ 드러내기

최 지 영

(단국대학교 교수, 제1저자)

高 雲

(단국대학교 박사 수료, 공동저자)

◆ 국문초록

이 글은 번역을 ‘자국화 작업이자 결과’로 간주하는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시각 하에, ‘이국화(foreignization)’를 자국의 동화주의적 윤리에 저항하기 위해 타문화의 낯섦을 드러내는 번역 전략으로 보고, 중한번역에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티베트계 중국 소설가 아라이(阿来)의 작품 『格拉长大』에서 소수민족의 인명을, 『格拉长大』와 『尘挨落定』에서 티베트 ‘문화 어휘’인 ‘火塘’과 ‘寨’를 사례로 발췌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 3세대 작가군에 속하는 아라이의 작품은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가 ‘소수문학’이라 규정한 ‘소수가 다수 언어 속에서 만들어 낸 문학 텍스트’에 속한다. 이에 ‘혼질적 담화(heterogeneous discourses)’를 양성할 수 있는, 이국화 번역에 적합한 텍스트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류(한족) 문화 속 ‘소수 문학(티베트)’이 또 다른 세계인 한국어 독자들과 만날 때, 도착어 독자들에게 ‘문화적 낯섦’ 드러낼 수 있는 이국화의 전략적 방식을 제안하겠다.

주제어 : 베누티, 이국화, 중한번역, 소수문학, 낯섦, 인명 번역, 문화 어휘, 번역 전략

1. 들어가며

이 글은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이국화(foreignization)’에 대한 개념적·전략적 이해를 통해 이를 ‘중국어 문학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이하 중한번역)’에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방식에 대한 슈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의 추상적 구분에서 영감을 받아 베누티(1995:19-20, 99-103)에 의해 개념화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화/이국화’는 현재 번역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분석방식(analysis tool)의 하나일 것이다(이상원 2011:113-114). 일반적으로 도착어(target language)권 독자를 중심에 두고 저자를 데려오는 번역으로 여겨지는 ‘자국화(domestication)’는 가독성/자유로움/의역/수용자/자민족중심주의 등과 관련되어, 반면 도착어권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방식으로 간주되는 ‘이국화’는 충실성/엄밀함/직역/저자/타자성의 발견 등과 관련되어 읽히고 있다(김영신 2016, 오미형 2007, 이정순 2012, 张弛 2018). 또 번역 방식과 전략이 혼용되거나(양레이 2019, 郭端生 2019, 吴晓晖 2013), 문화소나 관용어 등 어휘/구문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王潇 2018, 朴锦海 2010). 다음(이근희 2010:156)은 자국화 번역으로 제시된 사례이다.

<예문 1>

ST: Every recipe in here comes from the Puckett famil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T: 궁계 여기 있는 요리법은 다 우리 퍼켓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요리법이야.

ST: Oh, my dearie, I'm not prepared.

TT: 어찌냐? 인잔 식탁에다가 아직 숟가락도 안 놓고

<예문 1>은 ‘그러니까(그러게)’의 전라남도 사투리인 ‘궁계’와 ‘이제’

의 전라남도 방언인 '인자'의 삽입을 근거로, '번역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 혼용)'를 자국화 번역이라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첫째, 어휘(감탄사)에서, 둘째 사투리의 사용을 근거로 자국화 번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사투리는 자국화 번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마치 처음부터 한국어로 써졌다고 느낄 정도로 매끄럽게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위 예문은 '자국화' 번역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국화란 '도착어로 유창한 번역', 베누티(2006:222)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전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 혼용)를 직접 접촉한다는 환상을 줄 정도로 투명한 번역'이라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번역문의 '유창함(flucy)'은 가독성 측면에서 자국화/이국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베누티(2006:28)에게 있어 도착어의 '유창함'이란, 구체적으로 TT를 접하는 독자가 이를 자국의 언어로 동일시하는 인식을 막는 '방언이나 이국적 문체들은 회피'하는, 즉 현재 통용되는 '표준어'를 고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투리의 사용을 근거로 위 예문을 분류한다면, 최소한 베누티의 개념에 따르면 '이국화'라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국화/이국화를 판단함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부에서 통용되는 자국화/이국화 분석과 자국화/이국화에 대한 베누티의 개념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¹⁾ '자국화/이국화'가 일반적으로는 도착어권 독자들에게 '익숙하게/낯설게 번역하기'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이상원 2011:118-119), 베누티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ST의 선정에서부터 TT가 초래하는 사회·문화·정치적인 영향까지, 번역의 전 과정을 아우르면서 때로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 예문을 자국

1)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문학 번역에서 자국화/이국화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혹은 기준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라 판단한데는 사투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도착어의 유창함, 즉 ‘이국화는 유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나, 베누티의 이국화에서 ‘낯설게 번역하기’는 한 두 개의 어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작품 전체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번역을 ‘자국화의 작업이자 결과’로, ‘이국화는 그러한 자국화 과정에서’ 타문화의 낯설 혹은 이국성(the foreign)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베누티(1995:19-20)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를 중한번역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베누티(2006:24)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을 빌어, ‘언어를 집단적 힘이자, 특정 기호 체계를 구성하는 형태들의 조합체’라 보는데, 이때 그 정점에는 ‘표준어(주류언어, a major form)’가, 그리고 그 아래로 ‘소수언어(a minor form)’인 방언과 은어, 상투어와 유행어, 임시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시기의 주류언어는 다양한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하단의 ‘소수 언어’들은 언제든 주류언어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수(linguistic variations)’가 된다.²⁾ 그리고 베누티(2006:46)에게 있어 이국화 번역은 바로 이와 같은 ‘(도착어의) 표준어와 소수 언어를 적절히 혼용(heterogeneous discourses)’하여 원전 텍스트의 낯설(이국성)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착어권에서 반복·재생되는 주류적인 언어·문화적 규범과 가치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텍스트들은 그 자체로 기존 언어의 혼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성’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데, 바로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가 ‘소수 문학(a minor literature)’이라 규정한 텍스트들이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역 2006:25). 이는 소수가 다수언어 속에서 만들어 낸 문학, 즉 주류 문학(언어)내에서 만들어지는 소수자들의 문학(윤성우 2010:135)으로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 작가들에 의해 중국어로 쓰인 작품이 해당된다(박남용 2019:59). 따라서 베누티(2006:27-29)에게

2)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의 소수적 형태들을 베누티는 르세르클(Jean Jacques Lecercle)의 개념을 빌려 ‘잔여태(remainder)’라 칭하고 있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역 2006:24).

있어 이국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소수문학을 원전 텍스트로 선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낯설게 번역하기'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읽고 있는 것이 자국어 번역에 불과함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 글은 티베트계 중국 작가 아라이(阿来, 본명 杨永睿, 1959~)의 작품 『格拉长大』와 『尘埃落定』³⁾을 원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회족인 아버지와 티베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라이는 2000년 장편소설 『尘埃落定』으로 제5회 마오둔(矛盾)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의 3세대 소수민족 작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박정원·배도임 2018:71-73). 티베트자치구가 아닌 쓰촨(四川)성 서북부의 바르캄(འབྲུག་ཡུམ་རྫོང་, 중국명 마얼강)이라는 티베트 자치주의 작은 현(縣)에서 태어나 중국의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그의 언어나 작가 의식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티베트적'이지 않을 수 있다.⁴⁾ 그럼에도 티베트/회족/중국인의 경계에서 있는 그의 작품은 '표준 중국어(普通话)'로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언어 작가가 다수 언어 환경 하에서 다수 언어로 쓴 '소수문학 텍스트(sinophone literature)'로 이국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전략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베누티의 이국화 중 후자(後者)인 '낯설게 번역하기', 즉 한국어 번역텍스트 내에서 '혼질적 담화'를 전략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이국화 번역의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3) 『格拉长大』의 한역본은 전수정·양춘희의 『소년은 자란다』(2009)를, 『尘埃落定』은 중국계 번역가 지쿤(季琨)의 『티베트의 고독』(1998)과 임계재의 『색에 물들다』(2008)를 참조하였다.

4) “티베트가 무엇이고, 무엇이 티베트인지 한 마디로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단지 티베트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소라고밖에는 [...]” (『소년은 자란다』 2009:6-7)라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티베트 의식은 확실히 달라이라마의 다람살라 망명정부와는 다르며, 59년 라싸 봉기 이후 매년 3월 반복되는 티베트 자치구에서의 저항과도 다른,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평범한 티베트인들의 모습이다.

II. ‘전략’으로서 베누티의 ‘이국화’

1. 번역, 그리고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방식으로 자국화/이국화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번역’에 대한 베누티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베누티(1995:18-19, 2006:119)에게 있어 ‘번역’이란 그 대상이 ‘자국의 독자들’이기에, ‘자국의 문체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전을) 자국화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때 번역은 ‘항상 어떤 해석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해석은 ‘자국의 언어·문화적 가치들을 각인’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거친 번역물(IT)은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닌 (자국의) 것’이 된다. 또한 자국화는 ‘번역 그 자체뿐 아니라, ST의 선정에서부터 유포와 수용을 포함한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베누티(2006:62)에게 있어 ‘번역’이란 ST가 가진 언어·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 그것을 도착어 문화의 지배적 가치에 동화시킴으로써 번역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근본적으로는 자민족 중심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번역이란 항상 어떤 해석을 전달해 주는 법이다. 즉 도착언어들의 특성들이 첨가된 편파적이고도 변질화된 외국텍스트, 더 이상 신비스럽지 않은, 명확하게 자국의 문체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해 가능한 외국 텍스트를 전달해 준다. 간단히 말해서 번역은 모종의 자국화 작업을 수행한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17).”

실제로 베누티(2006:16-19)는 자신의 저작에 대해 행해지는 순화(馴化)적인 번역에 반발하는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에 대해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며, 설사 쿤데라 자신이 번역을 한다해도 자국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일침을 놓고 있다. 이 점에서 베누티 역시 ‘번역은 결국 도착 문화에 속한다’는 투리(Toury 1995:29)의 관점과 일

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번역의 방식으로 자국화/이국화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베누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자국화는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이 본질적으로는 자국화 과정이며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국화' 방식을 ST에 대한 충실성이라 간주하고, 번역자가 이를 (의지적으로) 선택한다 해도, 베누티에 의하면 ST에 대한 '충실성'마저 자국의 문화와 가치 내에서 해석되는, 지극히 '자국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Venuti 1995:18).

“하나의 번역이란 결국 외국 텍스트에 대한 하나의 해석, 즉 다양한 역사적 순간의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성이란 규범도 결국은 자국 문화 속에서 설정되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범들을 따르는 번역이 아무리 외관상 원문에 충실해 보이고 언어학적으로 올바르게 보인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자민족 중심적이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144).”

한편 베누티(2006:61-81)에게 있어 '이국화' 또한 번역자가 선택하기 용이한 방식은 아니다. 이는 '유창한 번역'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데, 베누티는 그것이 '원저자성(authorship)'에 대한 환상과 '대중(적) 미학'에 부합하려는 출판업계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고 있다. '원저자성'은 ST가 고유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 결과인 TT는 결국 ST를 모방한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Venuti 1995:7-8). 번역이 ST에 의존하는 2차적 존재라는 인식은 번역 결과에 대한 번역자의 두려움을 야기하고, 결국 TT에서 번역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인해 '번역자가 사라지게 되었다(invisibility)'는 것이다(Venuti 1995:1-2).

“실제 행해지는 번역은 외국 텍스트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 이 텍스트들을 도착어 문화의 지배적 가치들에 동화시킴으로써 자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 즉 겉보기에 번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번역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화와 순화(馴化) 과정을 거쳐 번역된 텍스트는 원래의 것, 즉 외국 원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옮긴 하나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간주 되었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62).”

번역텍스트에서 번역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방식은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것’, ‘투명하여 번역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마치 원작 그 자체인 것’ 같은 환상을 주게 된다. 베누티(1995:5, 2006:11-12)는 이와 같은 ‘투명한 번역’이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언어, 즉 현재의 ‘표준어’를 통해 구현된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 번역자가 ‘이국화’를 번역방식으로 선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번역에 부과되는 ‘대중(적) 미학’이다. 번역이 가지는 낮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출판업자들은 번역에 대해 상업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 결과 번역은 광범위한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담화 전략, 즉 ‘대중 미학’을 강요받게 된다. 그중 대중 미학 담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인 ‘사실주의(realism)’는 독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할 수 있는 ‘투명한 언어’를 선호한다. 즉 ‘단순하고도 연속적인 구문과 친숙한 어휘’, ‘미학적 형태보다는 의사소통과 내용을 강조’하는, 아예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는 ‘유창한 번역’을 역시 번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Venuti 1995:3-5).

결국 베누티(1995:17-18, 2006:15-17, 46)에게 있어 번역이란 ‘모종의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특정 가치와 제도들에 봉사하게 하는) 자국화 작업’이며, 번역자는 그 과정에서 ‘공범자’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문화보다는 자국 문화, 그리고 자국 내 독자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번역사의 비대칭적 관계를 고려할 때 자국화가 아닌 번역방식을 선택하기는 더욱 요원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번역, 그리고 자국화/이국화에 대한 베누티의 생각을 이해 하면, 베누티의 '이국화'가 번역 행위나 방식보다는 특정 의도와 목표를 함축하는 '전략'으로서 읽었을 때 더욱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 경 2009:90, 김선영 2014:43). 번역이 그 자체로 자국화의 과정이자 결과이고, 방식으로서 이국화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베누티(2006:154)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역자는 '단호하고도 엄격한 자세'로 이국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국화는 전략으로써 목적을 가진다.⁵⁾

2. 이국화의 목적과 '전략'으로서 이국화의 실현

그렇다면 '전략'으로서 이국화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며 어떠한 방식과 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이는 무엇보다 '좋은 번역'에 대한 베누티의 생각과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국화에 대한 베누티의 선호는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는바, 결국 '방식'과 '전략'은 좋은 번역이라는 목적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베누티(2006:26-27)에게 있어 '좋은 번역'이란 '소수화하는 번역'이며, '외국 텍스트의 독립적 존재를 드러내는 번역'이자, '자국 내의 그 어떤 동화주의적 윤리에도 저항하는 번역'이다. 이를 번역방식과 목적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수화(minoritizing)하는 번역'이다. 베누티는 '언어를 통해 외국 텍스트의 낯섬을 드러내야 한다'는 베르만의 관점에 동의하며(Venuti 1995:20), 소수화하는 번역을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소수화하는 번역이란 곧 '이국화 방식'으로 원전 텍스트의 '이국성(the foreign)을 드러내는

5) 물론 목적이나 의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략으로서 자국화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때 자국화를 전략으로 읽기 위해서는 TT의 가독성이나 도착어의 유창성을 넘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자국민의 계몽을 위한 서양 원전들의 번역(근대성의 번역)이나 식민주의 잔재를 씻기 위한 의도적인 번역(저항으로서 번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베누티(2006:291-318)도 이 경우에만 자국화를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문학을 원전 텍스트로 선정하는 것과 독자와 거리를 두는 '낮설게 번역하기'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후자(後者)의 방식으로 베누티가 제안하는 것이 '혼질적 담화', 즉 언어적·문체적으로 다양한 잔여태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이다. 이는 베누티(2006:27)의 표현을 빌리자면, '텍스트 내에 혼질적인 담화를 양성하여 도착언어의 잔여태를 해방함으로써, 도착어의 위계질서와 고정된 가치를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 개방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음차나 사투리, 혹은 낯선 문체(예를 들어, 상투어나 의고체) 등이 이국화 번역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혼질적 담화에서 '혼질성'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는 물론 자국 문학과 대상 독자층, 그리고 텍스트의 시대와 장르, 문체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베누티(2006:32)도 인정했듯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러나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적정선을 가진다. 하나는 혼질성이 독자의 접근을 좌절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혼질성(자국화 속 이국화의 정도)은 대중적인 접근을 좌절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낮선 것일 필요는 없다. 번역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일부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에서만 잔여태가 표출된다면, 독자의 참여가 중단되는 것은 잠시이다. 게다가 광범위한 독자층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수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번역이 다양한 문화 집단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산출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집단 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28).”

또 다른 하나는 TT에서 타문화의 재현이 편파적이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베르만(2011:115)의 표현을 빌리자면 '낮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기괴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낯섦'을 이용해 그 '낯섦'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자민족 중심적인 활동(자국화)'이 된다. 지극히 자국화적인 번역으로 베누티(2006:126-128)는 현대 일본 소설 『설국』을 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후 40여 년간 영미권 독자들에게 일본이 매우 신비스럽게 왜곡된 이미지로 고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좋은 번역은 자국 내 모든 동화주의적 원리에 저항하는 번역이다. 바꿔 말하면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동화'를 밝힘으로써 자국 내 위계질서를 고착시키려는 모든 동화주의적 윤리에 저항하는 것이 이국화 번역의 목적이 된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27). 이국화의 목적에 대한 이와 같은 베누티의 생각에 이르면, 이국화는 전략이며, 그렇기에 번역을 단순히 어휘나 문체의 낯섦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번역방식이 외국 텍스트의 낯섦을 드러냄으로써 자국의 고정된 언어·문화적 규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번역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면, 곧 이국화 번역이라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국화라고 해서 반드시 파격적인 어휘나 실험적인 문체, 혹은 읽기 힘들 정도로 난해할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높다고 해서 이국화 번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베누티의 자국화/이국화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자국화/이국화 분석 틀과 차이를 가진다 하겠다.

이는 베누티(2006:148-151)가 이국화 전략의 성공사례로 꼽은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영역본을 접하고 나면 보다 명확해진다. 미건 배커스(Megan Backus)가 번역한 『키친』은 매우 성공적인 이국화 번역으로 꼽히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표준 영어를 사용해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베누티가 배커스의 이국화 번역에서 주목한 것은 표준 영어와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뒤섞어서 만들어 낸 '혼질적 담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담화를 '적절하게' 뒤섞었다는 데 있다. 그 적절함의 정도가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에게 읽고 있는 것이 원전이 아닌 번역본임을 자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누티가 꼽는 성공 요인은 원전 텍스트의 선정이다. 당시 영어권이 일본 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전(canon)을 벗어난 작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 어떤 번역 프로젝트가 입안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외국 문학에 대한 어떤 자국 정전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에, [...] 다시 말해서 번역을 통한 문화적 저항 프로그램은 특별히 문화적인 형태들을 취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규범적이고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에게서 벗어나는 텍스트들과 번역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148-149).”

“어떠한 담화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단지 특정한 외국 텍스트를 번역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국의 외국 문학 정전들과 외국 문화에 대한 자국의 고정관념들에 도전함으로써 이 텍스트의 외국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로렌스 베누티/임호경 옮김 2006:143).”

결국 베누티의 이국화는 ‘자국 내 모든 동화주의적 윤리에 저항한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혼질적 담화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타문화를 ‘낯설지만 기괴하지 않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또 ‘번역자의 행동과 결단(Venuti 1995:307-313)’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전략으로서 이국화는 때에 따라 유창한 표준어를 사용해 높은 가독성을 취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생경한 어휘나 문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창함’이나 ‘혼질성’이 어디에 어떻게, 즉 얼마나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설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이 설계되는 그 시점에 도착어권에 고착된 정전과 그러한 정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원전 텍스트에 대한 고려가 전략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III. 중한번역에의 적용 사례 분석

번역학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적) 어휘(cultural vocabulary)’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표현이 드러난 단어(New Mark 1988:95)’로 고도의 문화적 함축성으로 인해 이국화의 혼질적 담화 양성에 적합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문화적 어휘 중 소수민족의 인명과 티베트적 문화 어휘인 ‘火塘’과 ‘寨’를 중심으로 이국화 번역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소수민족의 인명 번역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인명’에는 인물의 성격이나 신분, 작품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모티브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무엇보다 번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명’은 출발어권의 문화와 시대, 사회적 정체성이 담겨 있는 ‘문화 특적적 요소(cultural-specific item)’로(김효중 2004:37), 사실상 ST와 TT 간 직접적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명 번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차(transliteration, 혹은 음가 번역) 방식’은 그 자체로 혼질적 담화를 만들어 내기 적합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의미는 번역이 불가능(intranslatability)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번역자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중한번역에서 인명은 초기에는 ‘한자어 음차’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어 음차+중국어 문자표기’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어를 표준어로 공유하나 동시에 소수민족의 언어로 쓰인 인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소수)민족어(ST1)→중국어 음차(ST2)→중국어 음차의 한국어 번역(TT)’ 순서로의 번역방식이다(<그림 1>의 A).



<그림 1> 소수 민족 인명 음가 번역의 두 가지 방식

다음은 『格拉长大』에 등장하는 인명의 번역이다.

<예문 1>

ST: 娥玛可着大嗓门问她问她从哪里来的。(阿来 2007:3)

TT: 어마가 목청을 크게 돋우어 어디서 왔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전수정 · 양춘희 2009:140).

ST: 军分区的侦察参谋, 银巴: 我: 农牧局的小车司机, 秦克明。
(阿来 2007:127)

TT: 군부대 정찰차마모인 인바(銀巴), 나, 농목국(農牧局) 운전기
사인 친커밍(秦克明)(전수정 · 양춘희 2009:117).

ST: 谢拉班竟不知自己身在何处。(阿来 2007:100)

TT: 세라반(谢拉班)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전수정 · 양춘희 2009:179).

ST: 更重要的, 这家的女主人桑丹有些痴傻。(阿来 2007:2)

TT: 이 집 여주인 쌍단(桑丹)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바보라는 사
실이였다(전수정 · 양춘희 2009:139).

ST: 在这阴霾天气里, 格拉的声音银子般明亮。(阿来 2007:2)

TT: 흙먼지로 뿌연 날씨에 거라(格拉)의 목소리가 은구슬처럼 맑
게 울렸다(전수정 · 양춘희 2009:138).

<예문 1>의 티베트 인명은 ‘세라반(谢拉班)’, ‘쌍단(桑丹)’, ‘거라(格拉)’ 등과 같이 ST2(중국어)에서 TT(한국어)로 음가 번역되어 ST2의 문자와 병렬 표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첫째는, 최종 음차(TT)된 인명과 실제 이름의 음가 간 차이이다. 공용어로 중국어와 함께 민족어를 공유하는 소수민족은 이름도 민족어를 사용해 짓는 경우가 많다. 또 표음문자인 한국어가 표의문자인 중국어에 비해 음차가 훨씬 용이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ST1이 아닌 ST2에서 음차된 이름(TT)들은 실제 음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음가 차이는 일부 인명의 경우,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문제는 작품 속에서 실제 원음과 음가 차이를 보이는 인명 번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표 1> 『格拉长大』 주요 등장인물의 인명 음가 번역

	ST1	ST2	TT1	TT2
1	ཨ་ལའི	阿来	아라이(阿来)	아리(a liae)
2	ཤར་ལྷ་འབྲུག་པ།	谢拉班	세라반(谢拉班)	헐리번(herlianben)
3	དགེ་ལེགས།	格拉	거라(格拉)	기라(giela)
4	བསམ་གཏན།	桑丹	쌍단(桑丹)	쌍단(hsangdan)
5	འོ་མ།	娥玛	어마(娥玛)	얼마(oerma)
6	ནོར་བུ་དོན་འབྲུག་པ།	洛吾东珠	뤄우둥주(洛吾东珠)	눠우둥쭈(nuowurdoungzhuo)
7	ཚོ་མོ།	次多	츠뉘(次多)	치뚜(ciaduo)
8	ཨ་འུ་མ།	阿嘎	아가(阿嘎)	아까(arka)
9	འཕེ་མེད།	齐米	치미(齐米)	첸메(qiermei)
10	བཞུན་པ།	戴芭	다이바(戴芭)	덴바(denba)
11	གཡང་པ།	银巴	인바(银巴)	잉빠(yangba)
12	བདུན་པོ།	丹泊	단포(丹泊)	(훗)단뿌(hedanbu)
13	ཀུ་ཇུ།	克珠	커주환(克珠)	거쭈(ergezhu)
14	བདུན་པ།	丹巴	단바(丹巴)	(훗)단바(hedanba)
15	ཀོ་ཇུ།	柯基	커지(柯基)	퀴쩍(Kuie ijiu)
16	དཀར་མེད།	汪钦	왕친(汪钦)	흥친(heang qin)
17	ཨ་ཚུ་མེད།	秦克明	친커밍(秦克明)	칭켜밍(qingkiemen)

•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아바 바르캅시 문화체육관광국(08372822953) 문의

6)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국 문학작품 내 중국 인명이 서양어로 번역될 때이다.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구양순의 경우도 중국식 발음(Quyang Xun)이 아닌 한국식 발음은 구양순(Ku Yangsun)으로 번역되어 도착어권 독자들에게는 동일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김경희 2016:12-13).

이와 같이 중국어와 음가가 다른 소수민족의 인명을 중국어 음가에
만 근거해 번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오역이 나오기도 한다.

<예문 2>

ST: 丹泊问表姐：“舅舅怎么比最好的猎手克珠还喜欢打猎？”

(阿来 2007:85)

TT: 단포가 사촌누나에게 물었다. “외삼촌은 어째서 최고의 사냥
꾼인 키주환(克珠獵)보다 사냥을 좋아하지?”

(전수정·양춘희 2009:108).

ST에서 ‘克珠’라는 이름을 번역자가 ‘克珠还’으로 착각하고 ‘키주(실
제 음가 거쭈(ergezhu/ཀར་ལྷོ་མཁའ་))’가 아닌 ‘키주환’으로 번역하였다. 물론 단
순한 착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름을 ‘克珠’로 보거나 ‘克珠还’으로
보든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제외하고는 내용 이해에 큰 무리가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일반적으로 3자로 구성
된 중국어 인명과 달리 2자나 3자, 심지어 4~5자로도 구성될 수 있는
소수 민족 인명을 음가에만 근거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오역이라 하겠다.

둘째, ‘ST2에서의 음차’와 ‘ST2의 문자 병렬표기’ 방식은 문화의 이
국성(the foreign)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중국식 한자(간체자)’를 병행 표기함으로써, 인명이 가지는 소수민족
고유의 ‘낯섦’은 아예 그 흔적이 덮인 채 도착어권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물론 ‘티베트=중국의 일부분’으로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나, 문화
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작은 차이라도 최대한 전달하는 것
이 베누티(2006:145-148)의 번역이 가져야 할 ‘차이의 윤리’일 것이다.
인명 번역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보자.

<예문 3>

ST: 母亲点头, 脸上露出了幸福的笑容。“就叫她戴芭吧, 生她时,

下雪, 名字就叫雪吧。”(阿来 2007:19)

TT1: [...] “다이바(戴芭)”라고 부르는 게 어때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으니 이름은 쉘(雪)라고 하고요.”
(전수정 · 양춘희 2009:164)

먼저 위 예문은 도착어권 독자에게 논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모호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ST의 ‘~라고 이름을 부르다’라는 중국어(叫)가 ‘다이바(戴芭)’와 ‘쉘(雪)’ 모두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시화(explicitation)’시켜보면(『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2009:132-133) 대략 다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TT2-1: [...] ‘다이바(戴芭)’라고 부르는게 어때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으니 이름은 ‘눈(雪)’이라는 뜻의 ‘다이바’라 짓기로 해요.

TT2-2: [...] ‘다이바(戴芭)’라고 부르는 게 어때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으니 중국어로는 ‘쉘(雪)’라고 하고요.

티베트 이름 ‘다이바’에 ‘눈(雪)’이란 의미가 있다(TT2-1)’는 것인지(박정원 · 배도임 2018:79), 이름을 ‘티베트어로는 ‘다이바’, 중국어로는 ‘쉘(雪)’라고 부르겠다’는 것인지(TT2-2), 전후 문맥만으로는 의미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작가의 고향인 바르캄 시에 문의해 티베트어 다이바에 ‘눈’이라는 뜻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문자보다는 말이 발달하고 자치구 외에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적 · 거주적 특성상 눈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다이바’라는 이름은 작가의 고향에서만 쓰일 가능성도 있다.⁷⁾ 이와 같은 의미 관계

7) 티베트 이름 ‘덴바’에 눈의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같은 티베트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아라이의 고향인 바르캄 시의 문화체육관광국(08372822953)에 확인을 하였다.

를 고려하면서, 이국화 방식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TT3: [...] ‘텐바’라고 부르는 게 어때요. 아기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으니 중국어로는 ‘설이(雪)’라 하고요.

우선, ‘다이바(戴芭)’를 ST1에서 직접 음차하여 ‘텐바’로 바꾸었다. 음가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ST2 문자 병렬표기를 삭제했을 뿐인데도 소수민족적인 이국성은 꽤 살아난다. 또 다른 하나는 “名字就叫雪吧”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차에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가 아라이의 이름을 접하면서 고대 티베트어로 ‘막 땅에서 피어오르는 밀 모종(黄旭 2009:1)’을 도착어권 독자가 연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ST에서 이름의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면(‘아이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으니’), 연속적인 음차로 TT에서 가독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곧 이국화 번역은 아니며 혼질적 담화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낯센은 ‘텐바’로 충분하며, 이를 통해 도착어권 독자에게 타문화와의 거리를 상기시키면서, 이어서는 의미를 살려 ‘설이(雪)’라고 한다면, 독자의 발걸음을 잠시만 멈추게 하는, 전략으로 이국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어휘의 번역: 중국(한족)적인 것과 소수민족적인 것

문화(적) 어휘는 중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과 소수민족의 독자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적) 어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 장에서는 중국 문화 중 티베트적인 문화 함축성이 강한 ‘火塘’과 ‘寨’에 한정 지어 그 문화적 낯센을 어떻게 이국화시켜 번역할지 살펴보겠다.

우선 TT에 '화로'로 번역한 '火塘'이다. '火塘'을 '화로'로 번역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나는 의미적 등가의 실현이다.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에서만 존재하는 '火塘'은 일반적으로 TT에서 '화로'로 번역되는 '火炉'와는 모양도 기능도 다른 개념이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火塘'이 단순히 '火炉'의 사투리이거나 유사한 어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도착어권에서 '화로'로 번역한 '火塘'은 '의미적 등가의 효과(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구현(Nida 1964:159)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림 2> 티베트 일반 가정에서의 '火塘'

또 다른 하나는 '火塘'이 중국(한족) 독자들에게도 생소할 정도로 티베트 고유의 문화 어휘라는 점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火塘'은 방바닥을 파내고 돌레에 벽돌을 쌓은 뒤, 그 안에 불을 피우는, '난방기기(炉)'라기 보다는 '꽤인 구덩이(塘)'에 가까우며, 요리를 하는 화덕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 야외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실내의 2층 중앙이나 오른쪽에 거의 면적의 ¼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火塘’은 티베트인들의 삶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 그 자체이다. 평상시에는 차를 끓이고 요리하는 부엌으로 사용되며 겨울에는 난방의 역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조왕신(灶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다(夢洁 2017 참조). 이와 같은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면, TT에 대한 이해가 맥락적으로 깊어진다.

<예문 1>

ST: 地下是他新挖的火塘 和几件炊具: 一把木勺, 几只木碗, 一个铜茶饮。(阿来 2007:101)

TT1: 바닥에는 그가 손수 파서 만든 화로가 있고 취사도구와 나무 수저, 나무 그릇, 그리고 구리 주전자 하나가 놓여 있다 (전수정·양춘희 2009:180).

TT2: 바닥에는 그가 새로 파서 만든 구덩이 화덕과 취사도구들, 나무 수저 한 벌, 목각 그릇 몇 개, 그리고 구리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예문 2>

ST: 桑丹开始吃煨在火塘边的一罐麦粒饭。(阿来 2007:7)

TT1: 쌍단이 화롯가의 항아리에 준비해둔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다 (전수정·양춘희 2009:146).

TT2: 쌍단은 항아리에 넣어 구덩이 화덕에서 따뜻하게 덥혀뒀던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다.

‘화로’로 번역되었을 경우, <예문 1>(TT1)에서 ‘파다(挖)’, 그것도 ‘새로 파다(新挖的)’라는 번역이 도착어권 독자들에게는 의미상 다가 오지 않는다. 또 화롯가 주변에 취사도구들이 널려 있는 것도 무심히 넘길 수 있으나, 부엌 개념과 결합된 ‘구덩이 화덕’에 이르면 의미가 살아난다. 마찬가지로 <예문 2>(TT1)에서 생략한 ‘煨(재나 불씨로 굽겨

나 덥히다)'와 그 연장선에서 항아리 안에 왜 밥을 넣어두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이번에는 『尘埃落定』에서 ‘火塘’의 번역을 살펴보자.

<예문 3>

ST: 她妈妈眼睛给火塘里的烟熏出了毛病。七八岁时, 她就每天半夜起来给牲口添草。(阿来 2005:99)

TT1-1: 어머니는 화로 연기에 눈을 그을려 시력을 잃었고, 여덟 살 때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축에게 사료를 먹였다 (지쿰 2000:151).

TT1-2: 어머니는 천장이 낮은 집에서 아래로 깔리는 화로 연기에 눈을 그을려 시력을 잃었다. 여덟 살 때부터 타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축에게 사료를 먹어야 했다(임계재 2008:181).

TT2: 어머니는 구덩이 화덕에서 올라온 연기에 눈이 그을려 시력을 잃었다. 여덟 살 때부터 타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축들에게 사료를 먹어야 했다.

중국인 번역가 지쿰(TT1-1)은 ‘화로’로 번역하였으나, 한국인 번역가 임계재(TT1-2)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진 연기에 바닥에 있는 사람의 눈이 그을릴 수 있다는 논리적 관계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결국 ‘천장이 낮은 집에서 아래로 깔리는 화로 연기에 눈을 그을려’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때 ‘구덩이 화덕’이라 번역한다면, 즉 바닥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위로 연기가 올라 올 수 있는 점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굳이 의미를 보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함축성이 고도화된 어휘라는 점에서 이어서 ‘寨’에 관한 번역을 살펴보겠다. 먼저 집이라고 번역된 ‘寨楼’이다.

<예문 4>

ST: 现在越来越大的风驱使人们四散开去, 钻进了自家寨楼的门洞。
(阿来 2007:5)

TT: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바빴다(전수정·양춘희
2009:143).

<예문 4>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옥이라는 의미의 어휘를 구분해서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房子’나 ‘楼房’이 아니라 굳이 ‘寨楼’를 썼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왜 ‘门洞’이라 했는지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거주하는 집은 ‘房子’, ‘住房’, ‘公寓’, ‘楼房’ 등이라 하는데, ‘楼’가 들어가는 경우 2층 이상의 거주지를 의미한다(『新华字典』 2012:317). 거주지의 개념으로서 ‘寨’는 ‘寨楼’ 외에도 ‘官寨’, ‘寨房’ 등 티베트를 배경으로 한 아라이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중국어로 ‘방책이나 옛날 군영, 산채’라는 뜻의 ‘寨’는 티베트에서는 ‘군락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2층 이상의 가옥에 붙는 ‘楼’가 결합한 ‘寨楼’는 현재 티베트에서 자주 보이는 3~4층 규모의 가옥을 의미하는데, 산을 따라 지어진 망루의 개념인 ‘碉楼’와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가옥을 의미하는 ‘寨房’이 합쳐진 형태이다(王鑫 2018:228-229).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은 추운 겨울에 대비해 1층은 가축우리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2층 이상부터 사람이 거주하며, 보통 꼭대기 층에는 종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가축우리로 사용되는 1층과 사람이 사는 2층 사이에는 계단이 아닌 사다리로 이동함으로써 내부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집으로 바로 통하는 문(门)이 아닌 ‘통로문(门洞)’인 것이다.⁸⁾

또한 티베트의 가옥들은 고원이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계단식 논과 숲 사이에 군데군데 흩어져 전체적으로는 마치 성채를 이루듯 무리지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寨’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없어도 ‘집’과 ‘대문’만으로 <예문 4>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

8) 개혁개방 이후 현대화된 지금 전통 가옥에서 가축과 같이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아라이의 작품 속 티베트의 모습은 전통 가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

가 없다. 그러나 <예문 4-1>과 <예문 4-2>에 이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문 4-1>

ST: 广场被一群寨楼围绕。(阿来 2007:5)

TT: 광장은 집들로 둘러싸여 있다(전수정 · 양춘희 2009: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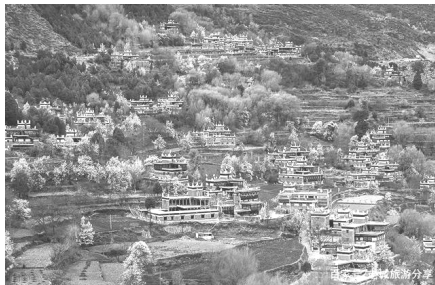
<예문 4-2>

ST: 这种沉寂使我们的寨楼显得更加雄伟庄严。(阿来, 2005:48)

TT1: 이러한 정적이 우리의 집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지쿤 2000:73).

TT2: 이런 정적은 우리의 산채 건물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
(임계재 2008:89).

일반적인 중국의 집을 그러서는 ‘마을의 광장이 집들로 둘러싸여 있다(<예문 4-1>), ‘집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예문 4-2>)’라는 광경이 도무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TT1에 비해 10년 뒤에 출간된 번역(TT2)에서는 ‘산채 건물’이라 함으로써 ‘웅장하다’는 묘사를 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寨楼’가 계단식으로 군락을 지어 있고 3~4층에 이르는 건물이라는 점에 이르면 곧 의미 있게 다가온다. 아래 <그림 3>은 군락을 짓고 있는 티베트의 ‘寨楼’들이다.



<그림 3> 티베트의 ‘寨楼’

‘寨’에 대한 이와 같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다른 어휘도 살펴보자.

<예문 5>

ST: 而她只不过是一个马夫的女儿, 进宣寨之前, 一直住在一座低矮的屋子里。(阿来 2005:99)

TT1: 그녀는 마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산채에 들어오기 전에는 낮은 방에서 살았다(지쿤 2000:151).

TT2: 하지만 타마는 마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산채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추한 집에서 살았다(임계재 2008:181).

ST: 麦其土司的宣寨的确很高。(阿来 2005:12)

TT1: 매치 투스 가족의 산채는 굉장히 높았다(지쿤 2000:23).

TT2: 마이치 투스의 가족이 사는 요새는 굉장히 높았다(임계재 2008:29).

『尘埃落定』에 등장하는 ‘투스’는 원(元)이래 명(明), 청(淸)에 이르는 중국의 제국 왕조에서 서남쪽의 소수민족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설립한 행정기구이자 관직의 명칭이다. 1271년 원나라에 의해 설치된 이래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직전까지 678년간 소수민족 지역에 존재해 왔다. 일견 제국 왕조 지배 하 소수민족의 족장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투스 제도 하에서 우두머리인 ‘투스’는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한해서는 정교합일(政教合一)로 정치·경제·군사·사법 등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상상 이상의 권한을 누렸다. 대대로 세습이 가능했으며, 세금 징수와 하부 단위 관리의 임명, 각종 법률과 조문의 제정 뿐 아니라 자체 군대(土兵)까지 보유하고 중앙 왕조는 이에 대해 일체의 간여도 하지 않았으니, 관할 지역에 한해서는 거의 왕조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겠다. ‘투스’에게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은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변경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원대에 투스 제도가 설립된 이

후 변경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의 무장 봉기나 변경 군벌의 출현이 훨씬 잦아들었고, 덕분에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雷宇·雷振扬 2019:95-98, 罗中 2020:24-29, 龚梦川·龚荫 2018:147, 魏聪 2015:9-10 참조).

<예문 5>는 마부의 딸이 투스가 있는 ‘官寨’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이전에 살았던 ‘(천장이) 낮은 집’이 투스가 거주하는 ‘官寨’와 대비되면서, 그녀의 신분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투스가 머무르는 ‘官寨’를 ‘굉장히 높았다(높은 지대에 있거나 천장이 높았다)’라고 묘사함으로써 위압적인 관사로서의 투스의 거주지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풍당당한 ‘官寨’는 ‘산채’라 번역된 <예문 5>의 TT1에 이르러 제국의 정식 행정 관리인 투스를 ‘산적 두목’급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이는 ‘산채’라는 어휘가 도착어권 독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산에 목책을 두른 터나 산적들의 근거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TT2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官寨’가 산채와 요새로 각각 번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 6>과 <예문 7>을 보자.

<예문 6>

ST: 每个寨子都有一个级别不同的头人。头人们统辖寨子，我们土司家再节制头人。(阿来 2005:12)

TT1: 마을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두목이 있다. 마을은 두목이 관할하고, 투스는 바로 그 두목을 통제했다(지훈 2000:23).

TT2: 마을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부족장이 있다. 마을은 낮은 등급의 소족장이 관할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고위족장인 투스는 바로 그 낮은 등급의 소족장들을 통제했다(임계재 2008:30).

<예문 7>

ST: 这些人把仍然忠于拉雪巴士土司的头人和各个寨子的寨首都杀掉了，带来了他们的脑袋，放在我的脚前。(阿来 2005:221)

TT1: 라서빠 투스에게 충성했던 두목과 각 마을의 촌장을 죽여 머리를 가져왔다. 죽은 자들의 머리가 발 앞에서 이리저리

굴렀다(지쿤 2000:57).

TT2: 여전히 라서빠 투스에게 충성했던 소족장과 각 마을 촌장의 머리를 가져왔다. 죽은 자들의 머리가 내 발밑에서 이리저리 굴렀다(임계재 2008:67).

<예문 6>의 ST를 보면 투스가 통제하는 관할 지역은 다시 몇 개의 하부 단위로 나누어서 투스 통제 하에 각각의 우두머리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 7>의 ST를 통해 투스들 간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중앙의 통제가 약해졌을 때는 투스 권력을 둘러싼 찬탈 경쟁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이를 정도로 무질서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雷宇·雷振扬 2019:99). 그러나 TT1의 ‘라서빠(다른) 투스에게 충성했던 두목과 각 마을의 촌장을 죽여 머리를 가져왔다.’, ‘죽은 자들의 머리가 내 발 앞에서 이리저리 굴렀다.’에 이르면, 투스는 산적의 우두머리이고 산적들을 이끌고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상황이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이다. 이 역시 ‘투스’라는 매우 낮은 어휘가 ‘마을’, ‘두목’, ‘촌장’, ‘산채’라는 도착어권 독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의미의 어휘와 함께 쓰임으로써 맥락적 오역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투스’와 연관된 ‘头人’은 두목, ‘寨子’는 ‘마을’, ‘寨首’는 ‘촌장’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도착어권 독자들은 익숙해진 이들 어휘를 통해 ‘투스’의 문화적 낮됨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작품 전체의 ‘낮됨’은 도착어권 독자들에게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시적이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점은 TT2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문 6>에서 투스를 의미상 ‘고위족장’으로, 그 휘하 우두머리들을 ‘소족장’으로 번역하여 맥락적으로 의미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역시 <예문 7>에서 ‘寨子’는 ‘마을’, ‘寨首’는 ‘촌장’으로 번역함으로써 투스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자신의 관할 영지 내에서가 아닌 일견 양민들에 대한 학살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실제 아래 <예문 8>을 통해 ‘寨子’는 촌(村)보다 하위

군락 개념으로 ‘寨首’는 최소한 촌장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8>

ST: 头人们带着各自的人马从四村八寨赶来。(阿来 2005:20)

TT1: 두목들은 각자 부하와 말을 데리고 사방에서 달려왔다
(지훈 2000:33).

TT2: 소족장들은 각자 부하와 말을 데리고 사방에서 달려왔다
(임계재 2008:42).

결국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어휘나 문장에서만 이뤄지는 ‘혼질적 담화’는 오히려 이국화의 목적에 배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타문화의 낯섬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결국 지극히 자국화적인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글을 맺으며

이 글은 번역에 대한 베누티의 생각을 살펴보고, 소수민족의 인명 번역과 티베트의 문화 어휘인 ‘火塘’과 ‘寨’의 사례를 들어 이국화를 중국 소수 문학의 한국어 번역텍스트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베누티의 이국화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당시 고정된 문학적 정전에 배치되는 번역텍스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국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번역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무조건 ‘낯설게 하기’나 ‘혼질적 담화 쓰기’가 아니며, 자국화 대비 가독성이 반드시 떨어져야 할 필요도 없다. 전체와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충분히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타문화의 낯섬을 군데군데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결코 기괴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한번역의 이국화 전략으로 소수민족 인명을 ST1(소수 민족어)에서 TT(한국어)로 직접 음가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무엇보다 ST2에서의 음가 번역이 ST1에서의 음가 번역보다 정교하지 않으며, 중국어 문자를 병렬표기함으로써 ST1이 본래 가졌던 고유의 낯설마저 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민족어의 번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원본 텍스트에 함축된 낯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은 베누티(2006:145-148)가 강조한 차이를 지향하는 번역가의 자세이자 윤리이며, 그 가운데서 번역은 원전에서 자신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간(間)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문화적 어휘의 경우 중국(한국)적인 것과 소수 민족적인 것을 구분해 번역할 필요가 있다. ‘火塘’과 ‘寨’의 사례만 봐도, 소수민족 고유의 어휘가 가지는 문화적 함축성이 중국적 어휘보다 훨씬 낯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두 개의 어휘에서의 낯설이 일관되게 설계되지 않은 결과, 번역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조차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텍스트는 도착어 독자들에게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이다(Venuti 1995:306). 그 공간에서 만나는 타자가 낯설 수는 있어도 왜곡되거나 기괴하게 느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국화는 미시적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거시적으로는 상호 맥락적 관계 하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베누티의 이국화는 결국에는 자국의 언어문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타문화의 낯설 드러내기’가 그 자체로 목적이었던 베르만과 달리, 베누티에게는 자문화의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이미경 2009:9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국화적 번역이 팽배했던 영어권에서 베누티의 이국화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국화가 가진 취지는 그 자체로 현재 한국과 중국, 중국의 소수민족과의 번역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2016), 「한불문학번역에서의 인명 번역에 관한 고찰」, 『프랑스어문교육』 5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7-32.
- 김선영(2014), 「일방적 문화편향성을 넘어 상생의 미학으로-베누티와 베르만의 이국화 번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4, 한국비교문학학회, 25-55.
- 김양수(2009), 「중화세계 주변부 기억으로서의 티베트 문학-티베트, 가족 끈에 매듭에 묶인 영혼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21,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466-488.
- 김영신(2016), 「이국화 인가 자국화 인가」, 『동서비교문학저널』 37,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37-55.
- 김효중(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 모나베이커/한국번역학회 역(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신문화사.
- 박남용(2019), 「아라이 시에 나타난 티베트 문화의 형상화」, 『중국연구』 79,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57-79.
- 박정원·배도임(2018), 「아라이 소설 속의 '어머니' 형상의 양가성 연구-『소년은 자란다』, 『색에 물들다』, 『거짜얼 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77,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71-97.
- 로렘스 베누티/임호경 역(2006),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 아라이/임계재 역(2008), 『색에 물들다』, 디오네.
- 아라이/전수정·양춘희 역(2009), 『소년은 자란다』, 아우라.
- 알라이/지쿰 역(2000), 『티베트의 고독』, 아라크네.
- 양트완 베르만/윤성우·이향 역(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철학과 현실사.
- 양레이(2019), 「박완서 소설의 중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연구」, 『지식인문학』 1-1, 지식인문학연구회, 85-109.

- 오미형(2007), 「한국아동문학의 외국어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 - 『고양이 학교』 영역본 사례 연구」, 『동화와 번역』 13,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187-213.
- 윤성우(2010),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베르만(Berman), 베누티(Venuti) 그리고 들뢰즈(Deleuze)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21-140.
- 이근희(2010), 「자국화 번역 방법의 정의 및 범주화」, 『통번역 교육 연구』 8-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51-171.
- 이미경(2009),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 연구』 10-2, 한국번역학회, 83-104.
- 이상원(2011),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113-125.
- 이정순(2012),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의 경계를 찾아서-한-중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0-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93-209.
- 이혜승(2013), 「자국화와 이국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 교육연구』 11-3,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23-140.

Nida,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Newmark, P. (1988), *A text 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Toury, G.(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Venuti, L.(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阿来(2005), 『尘埃落定』, 人民文学出版社.

阿来(2007), 『格拉长大』, 东方出版中心.

龚梦川·龚阴(2018), 「中国土司制度的发展历程、历史价值和现实意义

- 义」, 『云南社会科学』, 2018年 第5期, 138-147.
- 郭端生(2019), 「通过《阿Q正传》韩译本看翻译策略和翻译方法」, 『中国校外教育』, 2019年 第33期, 125-126.
- 黄旭(2009), 「阿来:网络文学的概念是生造的!」, 『电脑报』.
- 雷宇·雷振扬(2019), 「土司制度历史价值探析」, 『广西民族研究』, 2019年 第4期, 95-100.
- 罗中(2020), 「盛名难负:土司制度的美化」, 『遵义师范学院学报』, 2020年 第22卷06期, 24-29.
- 梦洁(2017), 「藏族火塘文化」, <https://www.tibet3.com/Culture/mswh/2017-10-24/63656.html> (검색일: 2021.01.05)
- 朴锦海(2010), 「歇后语韩译中的异化与归化」, 『延边大学学报』, 2010年 第43卷4期, 78-82.
- 王鑫(2018), 「传统民族村寨文化与建筑的保护研究初探——以丹巴甲居藏寨为例」, 『建筑与文化』, 2018年 第1期, 228-229.
- 王潇(2018), 「《镜花缘》原著与韩译本比较研究」, 『现代交际』, 2018年 第6期, 113-115.
- 魏聪(2015), 「藏文化与阿来小说创作——以《尘埃落定》为中心的考察」, 重庆师范大学, 硕士毕业论文.
- 吴晓晖(2013), 「韩汉语言中的文化差异与翻译策略」, 『科教导刊』, 2013年 第14期, 183+232.
- 张弛(2018), 「从文化内涵看韩汉熟语翻译的归化与异化」,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2018年 第6期, 130-131.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2), 『新华字典』, 商务印书馆.

❖ ABSTRACT

A study on Adapting Venuti's Foreignization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Revealing "Unfamiliarity" in "Minor Literature"

Choi, Ji Young
Dankook University

Gao, Yun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views "foreignization" as a translation strategy to confront domestic assimilation ethics by revealing the unfamiliarity of foreign culture, under the Lawrence Venuti's perspective considering translation as "the works and result of domestication." In this sense, this article aims to adapt foreignization in Chinese to Korean translation, and it uses names of ethnic minorities from Tibetan decent Chinese writer Alai's work, "格拉长大," and culture vocabulary, "火塘," "寨" from the "格拉长大," "尘埃落定," by the same author. The works written by a third-generation ethnic minority in China are included in the "literature written by a foreign writer in his/her mother tongue," defined as "minor literature" by Deleuze and Guattari. His works are suitable texts for translation using foreignization that has the possibility of fostering heterogeneous discourses. The authors propose a foreignization strategy that can reveal cultural unfamiliarity for target language readers when minor literature (Tibetan) in the mainstream culture (Han Chinese) meets the needs of Korean readers who live in another world.

Key Words : Venuti, foreignization, Chinese-Korean translation, minor literature, unfamiliarity, person's name translation, culture vocabulary, translation strategy

■ 논문접수일 : 2021. 05. 10

■ 심사완료일 : 2021. 06. 01

■ 게재확정일 : 2021. 06. 02

